협회에 바라는 마음

원 종 일

지난 대위원 총회에서 김용천 회장님의 유임에 우리 모두 박수를 보낸다. 우리 3,000명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총회에서 다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임기 중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계획을 무사히 완수하시라는 우리 전 회원의 뜻과 마음이 함께 작용하였다고 본다. 이제 우리 협회도 발족한지 20년이 넘는 어른이 되었다. 사회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식 수준이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료 서어비스도 한층 높아가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의 권익을 위하여 이제는 노력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회원의 협조없이 중앙회에서 주관하려는 모든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앙회에서는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동참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수 있도록 제반사항이 있어야 하며 특히, 미취업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협회에 현실적인 문제를 몇가지 제기하고 싶다.

첫째 교육의 개선과 물리치료 지침서의 발간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10년전의 학문이나 현재의 학문이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물론 기초의학은 변할 수 없지만 치료기술이나 환자가 요구하는 의료서어비스, 환자의 형태나 질은 과거와는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실에 맞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며, 아울러 학술위원회나 교수회의 등의 학술기관에서 물리치료 지침서의 발간을 제의한다.

물론 검사나 X-ray 같은 정확한 방법 제시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임상에 나와서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질환별, 원인, 증상, 평가방법, 환자분류법, 물리치료의 적용범위, 치료기기의 사용법 제시와 의료보험의 적용예후 등 전반사항을 기록하여 발간하면 많은 회원에게 참고가 되며 특히 신입회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학제 개편 문제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면허 취득 후에도 임상에서 직접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협회차원에서 각 대학에 건의하여 학교별로 부속의원을 개설토록 하여 방학이나 졸업 후에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싶다.

또한 현재 실습의 개선점을 들수있다. 현재의 신입회원의 실습에는 문제가 있다. 병원측에서 진정 후배를 생각하여 실습을 시키기보다는 일손의 부족에서 실습생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협회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무보수 실습은 우리의 지위향상에 역행되어지기 때문에 실습수당을 주어야 한다.

셋째 우리의 지위향상 문제이다.

타 직종에 비해 아직도 우리는 여성회원이 많은 편이다. 가끔 병원에서는 아직도 여성 물리치료사의 존칭에 '미스'가 붙는 경우가 많다.

협회 회원의 근무조건에 따른 불평등한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토록 힘써야 할때며 특히 의료기업자를 자제시켜야 한다. 우리 회원이 그들의 이용품이 되지않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각 시도에 미취업자를 등록시켜 그 지역에 PT실이 개설되면 병원장에 건의하여 병원의 적정수준에 맞는 회원을 각 시, 도 회장에게 의뢰하여 협회규정에 따라 소개시켜줌으로써 취업을 위하여 우리회원이 의료업자에게 아쉬워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며 위반행위를 하는 업자는 협회차원의 엄중한 대응책과 조치가 선행되야 할 것이다.

넷째 의료숫가의 적정수준이다.

제 17호 회보에 의하면 치료비 산출근거에 있어서 다원 계산이 hot pack이 410원 초음파 치료 780원이란 계산이 나왔었다. 이 또한 중앙회의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한다.

의료숫가의 현실화가 되지 못하고는 우리의 지위도 향상될 수 없고 일일 치료 적정수도 불가능하며 경영적 측면에서 절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사당하며 근무하는 회원도 묘안이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료숫가가 낮으면 시설투자도 힘이들고 환자가 요구하는 의료 서어비스도 어려워진다. 단적으로, 고주파가 약 150만원 정도라 할 때 일일 10명씩 2년을 해야 원가계산이 된다.

현실로 볼 때 동일효과라는 명목의 삭감이 많다.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고주파 치료기로 1일 10명씩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환자의 요구가 있어 실시한 치료도 삭감이 많다. 디스크의 경우 수술을 거부하고 PT를 계속 원할 때 치료비 삭감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물리치료 홍보의 문제이다.

이제는 병원에서의 PT의 인식과 필요성은 다 알고 있다. 문제는 일반대중의 홍보이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농어촌은 너무나 인식이 부족하다.

물리치료는 무엇이며 어떤 병을 치료하며, 어떤 특징이 있으며 또한 어떤 이점이 있는가를 인식시켜 나아가야 하겠다.

이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치료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환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의사에게 요구하는 단계로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숙원인 단독개설도 앞당겨 지리라 본다.

이제는 모든 것이 협회를 구심점으로 모든 회원이 한 마음으로 엉킨실을 풀어가듯 노력하며 우리의 노력없이는 물리치료의 발전과 권리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성남지부장—

—미 담—

「신애 재활원」을 위문

—부산 백병원 물리치료실—

부산 백병원 물리치료실 직원들은 구랍 19일 정성어린 위문품을 마련 지체부자유와 정신박약아 수용원인 「신애재활원」을 찾아 이들 원아들을 위로하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체부자유 원아들에게 물리치료를 해주었으며 연탄, 옷, 양말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창안에 창밖에

김 전 옥

창안에 창밖에 내가 있음은
창안에서 창밖으로
나를보는 네일게다.
닫혀진 창으로
열려진 창으로
그냥
이렇게 서있는 것을
창안에서
창밖에서 다르게 보임은
오래전 먼지낀 마음일게다
창안에서
창밖에서 정성으로 먼지털면
한 모습
한 마음으로 비추일것을
이제 금
손내밀어 때묻지 않은 헝겊으로
닫혀진 창을 열고
열려진 창을 닫고
너와 나
마음의 창을 닦자꾸나.

효성의원